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K-PID-5-SF)

Tae-Hwa Hong¹ Youl-Ri Kim² Soon-Taeg Hwang^{1†}

¹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²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Paik Hospital, Inje University, Seoul, Korea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 Section III includes a hybrid dimensional-categorical model of personality disorders.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the DSM-5 (PID-5) was developed with 220 items to assess the personality traits within this model but has several limitations such as fatigue and difficulty in maintaining attenti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K-PID-5-SF).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 was found that K-PID-5-SF had similar factor structures to those of the Korean version of PID-5.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PID-5-SF was adequate. The K-PID-5-SF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Korean version of PID-5,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and the NEO-Five Factor Inventory. In conclusion, the K-PID-5-SF had adequate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evaluating personality pathology, contributing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an alternative DSM-5 model for personality disorders.

Keywords: personality, personality disorder, DSM-5 section III,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K-PID-5-SF

미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Section III에서는 성격장애에 대해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범주적 분류모델 대신 차원-범주 혼합모델(Hybrid dimensional-categorical model)을 제시하였다. 또한 DSM-IV에 포함되어 있던 10개의 성격장애를 6개로 축소하였다. 즉, 조현형, 반사회성, 경계성, 자기에성, 회피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유지되었으며, 편집성, 조현성, 연극성, 의존성 성격장애가 삭제되었

다. 이는 진단의 신뢰도가 낮은 성격장애를 제외함으로써 성격장애 진단의 공병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Skodol et al., 2011).

Section III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성격 기능 손상(Impairment in personality functioning)과 병리적 성격 특질(Pathological personality traits)을 평가하여 성격장애를 진단하도록 하였다. 병리적 성격 특질은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 애착상실(Detachment), 적대성(Antagonism), 탈억제(Disinhibition),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의 5개 “영역(domain)”과 25개 하위 “양상(facet)”으로 구성된다. 병리적 성격 특질을 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먼저 Widiger와 Simonsen(2005)이 제안한 성격 특질을 반영하였다. 여기에는 DSM-IV-TR의 성격장애와 관련된 네 가지 부적응적 성격 특질로 ‘외향성(Extraversion) vs. 내향성(Introversion)’, ‘적대성(Antagonism) vs. 순응(Compliance)’, ‘통제(Constraint) vs. 충동성(Impulsivity)’,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 v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이 포함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으로 성격 병리 5요인(Personality psychopathology 5; Harkness, McNulty, & Ben-Porath, 1995)과 관련이 있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을 추가하였다. 이후 병리적 성격 특질의 개념을 좀 더 적합하게 반

†Correspondence to Soon-taeg Hw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won-gu, Cheongju, Korea; E-mail: ekekek2004@hanmail.net

†Deceased 24 August 2018

We are in deep sorrow over the deceased Professor Soon-Taeg Hwang who guided this study. He greatly contributed to advance in Korean psychology, and built a foundation for study on personality disorder. We all sincerely respected him who was a warm-hearted and most honorable scholar. We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 to him.

Received Apr 10, 2018; Revised Jun 20, 2018; Accepted Jun 25, 2018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Education)(NRF-2016R1D1A1A09917877).

영하기 위하여 ‘내향성(Introversion)’을 ‘애착상실(Detachment)’로, ‘충동성(Impulsivity)’을 ‘탈억제(Disinhibition)’로 명칭을 바꾸었다. 연구자들은 5개의 병리적 성격 특질 영역을 구성한 후 이들과 관련된 특성 37개를 하위 양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이들이 각 상위 영역 특질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적합하지 않은 양상들은 삭제되었으며, 병리적 성격 특질은 최종적으로 5개의 상위 영역과 25개의 하위 양상으로 구성되었다.

Krueger, Derringer, Markon, Watson과 Skodol(2012)은 Section III에서 제시한 병리적 성격 특질의 평가를 위해 성격 5요인 모델 및 DSM-IV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특성을 바탕으로 DSM-5 성격질문지(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를 개발하였다. PID-5는 여러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개인의 병리적 성격 특질을 측정하고 성격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연구 및 임상장면에서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Anderson et al., 2015; Fossati, Krueger, Markon, Borroni, & Maffei, 2013; Gore & Widiger, 2013; Quilty, Ayeart, Chmielewski, Pollock, & Bagby, 2013; Yam & Simms, 2014).

그러나 PID-5는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문항 수가 220문항으로 비교적 많기 때문에 환자들의 피로 및 주의력 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축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PID-5를 쉽고 빠르게 실시하기 위하여 25문항으로 이루어진 PID-5 간략형(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Brief Form, PID-5-BF)이 개발되었으나(Krueger et al., 2012), 이는 병리적 성격 특질의 5개 상위 영역(domain)만 측정하여 성격병리 평가의 유용성에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Maples 등(2015)은 영역(domain) 뿐만 아니라 양상(facet)도 측정할 수 있고, 좀 더 쉽고 간결하게 시행할 수 있는 PID-5 단축형(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Short Form, PID-5-SF)을 개발하였다.

PID-5-SF는 일반인 집단과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PID-5 원형을 실시한 후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활용하여 220개 문항을 각 양상당 4문항씩, 총 100문항으로 줄인 것이다. 선택된 100문항은 원형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형과 단축형 간의 적합도는 거의 일치하였다(Maples et al., 2015). 이는 PID-5-SF의 문항들이 원형에 포함된 특질들의 특성을 잘 반영함을 의미한다. 또한 PID-5-SF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5개 영역(domain) 및 25개 양상(facet)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된 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애착상실)–.91(적대성)이며($M=.90$),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된 영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7(적대성)–.91(부정적 정서성)로 나타났다($M=.89$). 양상의 내적

합치도 또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인=.74(의심성)–.88(기이성), $M=.83$; 임상집단=.67(무책임성)–.91(무쾌감증), $M=.83$. PID-5-SF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형과 동일하게 5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원형과 단축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 집단의 경우 평균 .97(영역)과 .94(양상)였으며, 임상집단의 경우 평균 .98(영역)과 .95(양상)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NEO-Personality Inventory-Revised (NEO-PI-R)와 PID-5-SF의 5개 영역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영역은 NEO-PI-R에서 측정하는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과 각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은 개방성(Openness)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DSM-5 Section II와 Section III의 성격장애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Section II 성격장애는 제안된 병리적 성격 특질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PID-5-SF가 신뢰성이 높고 성격장애를 타당하게 잘 측정해주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PID-5가 제작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만큼(Hong, Hwang, & Kim, 2018; Shin & Hwang, 2016), 단축형의 제작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판 PID-5의 단축형을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판 PID-5의 단축형이 구성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주의력이 제한되어 있고 동기가 부족한 환자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Edwards, Roberts, Sandercocock, & Frost, 2004; Jepson, Asch, Hershey, & Ubel, 2005; Kim, Kim, & Ha, 2011). 또한 성격병리와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흔히 여러 가지 척도들이 함께 사용되는 연구 장면에서 수검자가 작성해야 할 문항의 수가 줄어들어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만 18세 이상의 성인 1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지역사회 홍보 및 충북대학교 참가자모집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집하였으며, 대부분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문항으로 인한 참가자의 피로방지를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자는 세 유형의 질문지 중 하나를 작성하도록 무선적으로 할당하였다. 세 집단 모두 PID-5를 공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집단 1은 성격장애 진단검사(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Seo & Hwang, 2006), 집단 2는 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PSY-5; Harkness, McNulty, & Ben-Porath, 1995), 집단 3은 NEO-Five Factor Inventory(NEO-FFI; Costa & McCrae, 1992)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총 150부 중 회수되지 못한 자료 8부와 한 페이지 이상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무선 및 일관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 10부를 제외한 13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전체 참가자는 남자 58명(43.9%), 여자 74명(56.1%)으로 평균 연령은 만 24.15세($SD=9.50$)이었으며 만 18세부터 77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령대별로 18-20세가 56명(42.4%), 21-30세 64명(48.5%), 31-50세 6명(4.5%), 51-77세 6명(4.5%)으로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집단 1은 35명(남자 16명, 여자 19명, 평균연령 25.03세, $SD=10.38$)이었으며, 집단 2는 47명(남자 19명, 여자 28명, 평균연령 23.28세, $SD=6.73$), 집단 3은 50명(남자 23명, 여자 27명, 평균연령 24.15세, $SD=9.50$)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연구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정의 사례품을 지급받았다.

측정도구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Korean version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K-PID-5)

PID-5는 DSM-5 Section III에서 제안한 병리적 성격 특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이다(Krueger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Shin과 Hwang(2016)이 번안하고 Hong 등(2018)이 수정한 한국판 PID-5를 사용하였다. PID-5는 부정적 정서성, 애착상실, 적대성, 탈억제, 정신병적 경향성의 5개 상위 영역(domain) 및 25개 하위 양상(facet)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1='약간 아니다', 2='약간 그렇다', 3='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성격장애 진단검사

DSM-IV-TR의 성격장애를 평가하기 위하여 Seo와 Hwang(2006)이 개발한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평정척도이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0점=전혀 아니다-3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총 113문항으로 편집성 척도 14문항, 조현성 척도 14문항, 조현형 척도 12문항, 반사회성 척도 19문항, 경계선 척도 15문항, 연극성 척도 14문항, 자기애성 척도 13문항, 회피성 척도 11문항, 의존성 척도 15문항, 강박성 척도 13문항으로 이루어

어져있다.

성격병리 5요인 척도(PSY-5)

Harkness, McNulty와 Ben-Porath(1995)가 개발한 척도로 정상 성격과 비정상적 성격기능을 모두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MMPI-2 문항에서 PSY-5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격성(AGGR: Agressiveness), 정신증(PSYC: Psychoticism), 통제 결여(DISC: Disconstraint), 부정적 정서성/신경증(NEGE: Negative Emotionality/Neuroticism),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INTR: Introversion/Low Positive Emotion)과 같이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39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NEO-FFI

성격의 5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하고 Lee(1995)가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NEO-FF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40문항으로 구성된 NEO-PI-R(Costa & McCrae, 1992)의 단축형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경증(N: Neuroticism), 외향성(E: Extraversion), 개방성(O: Openness), 친화성(A: Agreeableness), 성실성(C: Conscientiousness)과 같이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 과

K-PID-5-SF 구성

병리적 성격 특질을 잘 대표하는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검증한 연구(Hong et al., 2018)에서 사용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양상 당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4문항씩 선정하였으며,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판 PID-5-SF를 구성하였다.

신뢰도

한국판 PID-5-SF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역 및 양상의 내적 합치도를 살펴보았다. 5개 영역의 평균 Cronbach's α 계수는 .76, 범위 .68(탈억제)~.83(부정적 정서성)이었으며, 25개 하위 양상의 평균 Cronbach's α 계수는 .77, 범위 .63(무책임성)~.89(불안성)로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of the K-PID-5-SF Compared to Maples et al. (2015)

	Items	Maples et al. (2015)		This study
		DS (n = 1,417)	VS (n = 109)	(N = 132)
Domains				
Negative affect	28	.90	.91	.83
Detachment	20	.89	.90	.81
Antagonism	20	.91	.87	.70
Disinhibition	16	.89	.90	.68
Psychoticism	16	.90	.90	.80
Facets				
Anxiousness	4	.88	.89	.89
Depressivity	4	.88	.88	.88
Emotional lability	4	.86	.89	.85
Perseveration	4	.81	.78	.70
Separation insecurity	4	.78	.85	.72
Submissiveness	4	.78	.78	.67
Hostility	4	.82	.82	.77
Anhedonia	4	.82	.91	.85
Withdrawal	4	.85	.85	.81
Restricted affectivity	4	.76	.74	.73
Intimacy avoidance	4	.82	.86	.66
Suspiciousness	4	.74	.74	.72
Deceitfulness	4	.81	.82	.74
Manipulativeness	4	.80	.76	.67
Grandiosity	4	.84	.76	.77
Callousness	4	.85	.79	.81
Attention seeking	4	.85	.88	.85
Distractibility	4	.86	.90	.85
Rigid perfectionism	4	.81	.84	.79
Irresponsibility	4	.77	.67	.63
Impulsivity	4	.85	.86	.88
Unusual beliefs and experience	4	.79	.77	.74
Risk taking	4	.82	.88	.81
Eccentricity	4	.88	.90	.77
Cognitive and perceptual dysregulation	4	.82	.72	.71
Domains		.90	.89	.76
Facets		.83	.83	.77
M				

Note. K-PID-5-SF =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DS = derivation sample; VS = validation sample.

구성 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판 PID-5-SF가 원형의 요인구조와 일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 표본과 측정변수 간 비율이 5:1이면 적합하다는 제안(Gorsuch, 1983; Tabachnick & Fidell, 2007)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25개의 측정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132명의 자료를 사용한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크게 부

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하여 χ^2 검증과 표본의 크기에 덜 민감한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일 경우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해석된다(Hong, 2000). 본 연구에서는 두 번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100문항이 각 양상의 특성들과 잘 연결되는

지 살펴본 후 25개의 하위 양상들이 5개 상위영역을 각각 잘 연결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100문항이 각 양상의 특성들과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5개 영역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탈억제 영역에 포함되는 16개 문항이 이 영역의 양상인 주의산만, 경직된 완벽주의, 무책임성, 충동성의 4개 양상에 올바르게 소속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1). 이러한 방식으로 5개 영역에 해당하는 25개 하위 양상들을 분석하여 양상과 문항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성, $\chi^2 = 649.37, p < .001$, TLI = .82, CFI = .83, RMSEA = .08, 애착상실, $\chi^2 = 289.65, p < .001$, TLI = .86, CFI = .88, RMSEA = .08, 적대성, $\chi^2 = 275.00, p < .001$, TLI = .87, CFI = .89, RMSEA = .07, 탈억제, $\chi^2 = 153.52, p < .001$, TLI = .91,

CFI = .92, RMSEA = .06, 정신병적 경향성, $\chi^2 = 210.51, p < .001$, TLI = .82, CFI = .85, RMSEA = .09, 에 포함된 문항들은 해당된 양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K-PID-5-SF

		χ^2	df	TLI	CFI	RMSEA [90% CI]
Items-facets	Negative affect	649.37	343	.82	.83	.08 [.04-.09]
	Detachment	289.65	165	.86	.88	.08 [.06-.09]
	Antagonism	275.00	165	.87	.89	.07 [.06-.09]
	Disinhibition	153.52	100	.91	.92	.06 [.04-.08]
	Psychoticism	210.51	100	.82	.85	.09 [.07-.11]
Facets-domains	713.71	265	.70	.73	.11 [.10-.12]	

Note. K-PID-5-SF =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TLI = Tucker-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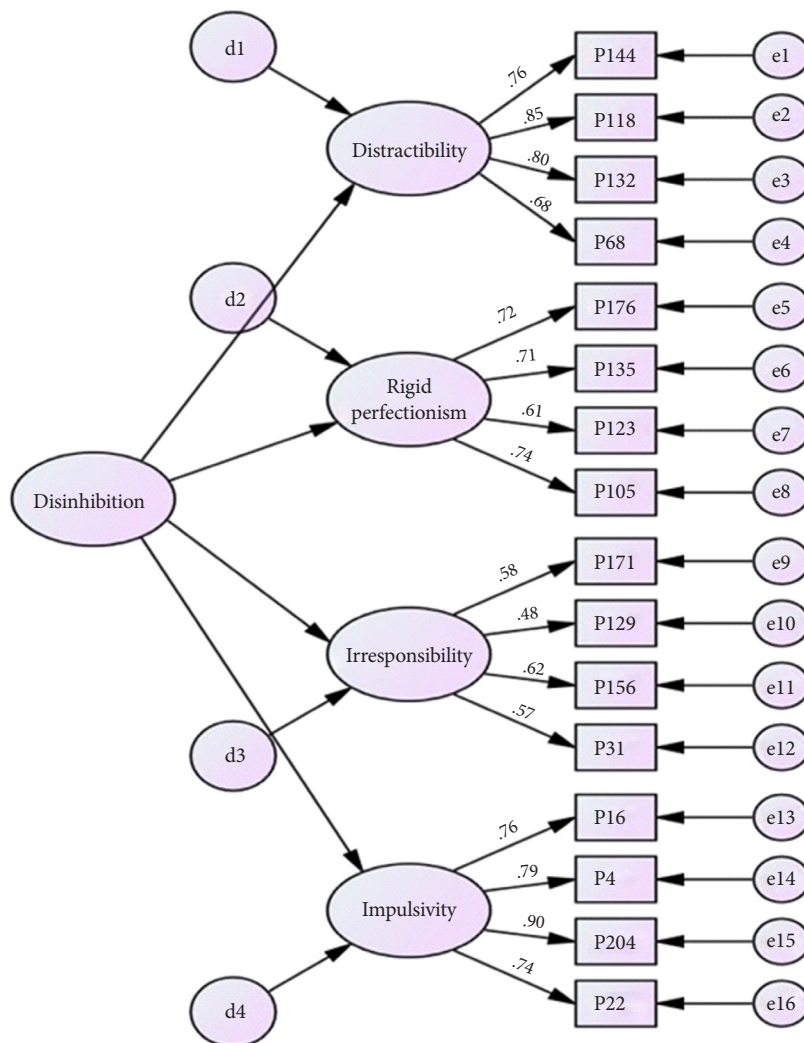


Figure 1. Path diagram of the relationship items and facets for disinhibition domain. Note. All paths show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상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일부 모형의 적합도가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TLI와 CFI가 .9의 근사치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수준의 RMSEA, 양상에 대한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표준화된 계수가 모두 .40 이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모형의 적합성이 수용되었다.

다음으로 병리적 성격특질 25개 양상이 상위 특질인 5개 영역과 잘 연결되는지 확인한 결과, 적합도가 $\chi^2 = 713.71, p < .001, TLI = .70, CFI = .73, RMSEA = .11$ 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가 낮은 원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살펴본 결과, 감정 가변성과 적개심, 우울성과 무쾌감증, 친밀성 회피와 위축의 각 오차항 간, 제한된 정서성과 위축의 각 오차항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각각 M.I. = 31.50; 23.54; 17.48; 14.95. 적합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각 영역에 대한 양상들의 요인부하

량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단축형의 요인구조가 원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Figure 2).

한국판 PID-5와의 상관관계

한국판 PID-5-SF가 원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질을 잘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형 문항들에 대하여 양상별로 문항반응이론의 부분점수모형(partial credit model, PCM)으로 분석하여 참가자의 특질모수(θ)를 산출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의 장점 중 하나인 특질모수 추정치의 불가변성(invariance of trait parameters)은 문항반응이론에서 산출되는 참가자의 잠재특질 및 능력을 나타내는 특질모수(θ)가 문항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성질을 의미한다. 한 참가자의 척도 점수가 A, B, C 문항들로 산출되는 경우와 난이도가 다른 D, E, F 문항들로 산출되는 경우 동일한 것으로, 어떤 문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참가자의 능력이 다르게 추정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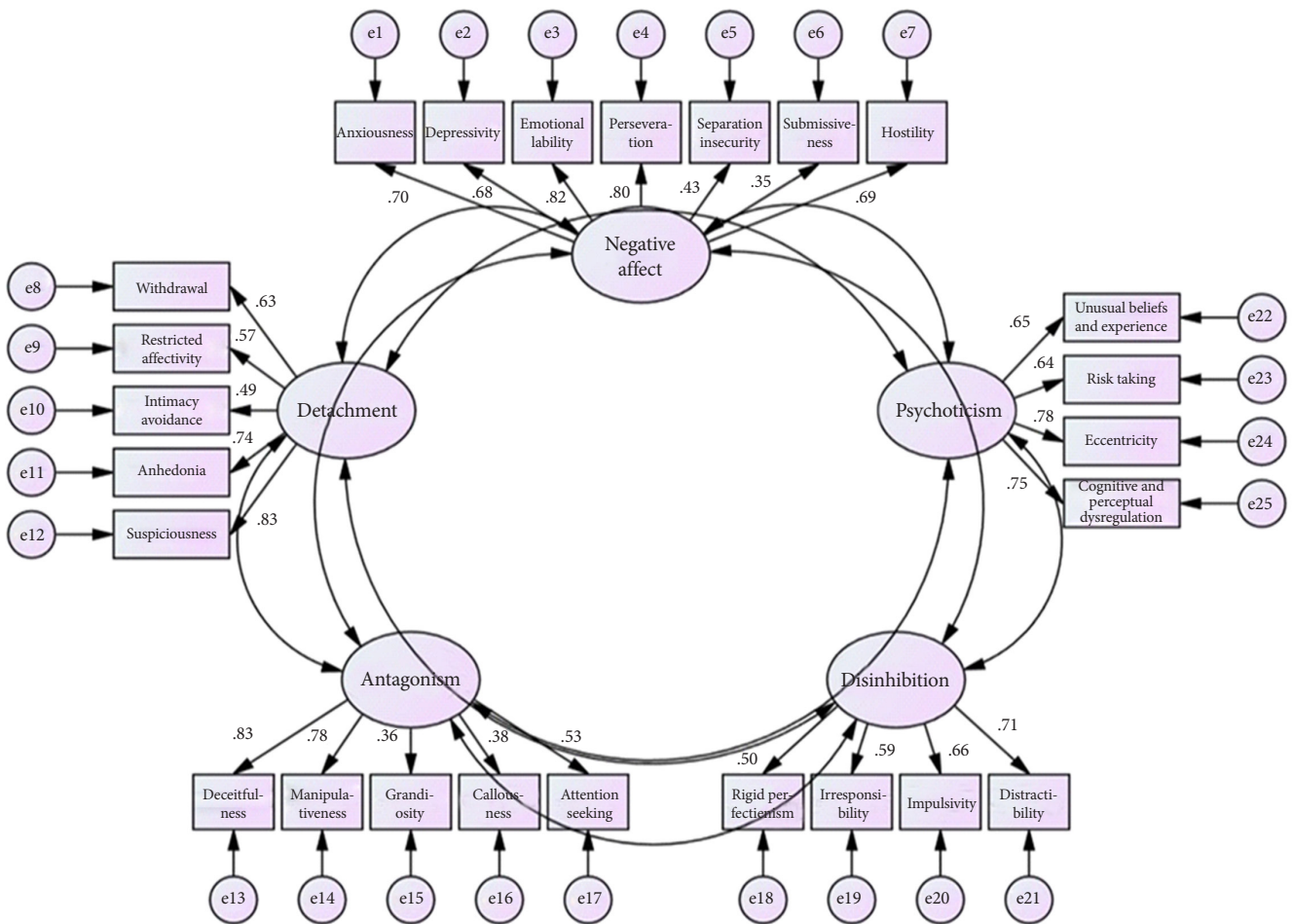


Figure 2. Path diagram of the K-PID-5-SF.

Note. K-PID-5-SF =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All paths show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PID-5 단축형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의 원형 질문지에 대한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특질모수(θ)를 산출하여 단축형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반응이론은 특질모수 추정치의 불가변성을 가지므로 원형 질문지에서 얻어지는 참가자의 점수와 단축형 질문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동일할 것이다. 따라서 PCM으로 산출된 참가자들의 특질모수(θ)와 한국판 PID-5 단축형 점수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면 단축형은 원형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질을 잘 측정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참가자의 특질모수(θ)와 한국판 PID-5 단축형 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89, $p < .001$, 범위 .77(냉담성)–.99(복중성)로 높은 상관을 가져 PID-5-SF는 원형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질을 잘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와의 상관관계

Section III에 유지된 6개 성격장애와 병리적 성격 특질 영역 간 상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K-PID-5-SF and Personality Disorder Test

	Personality Disorder Test									
	Personality Disorders proposed to be remained in DSM-5 Section III						Personality Disorders proposed to be removed in DSM-5 Section III			
	STPD	ASPD	BPD	NPD	AVPD	OCPD	PPD	SPD	HPD	DPD
Negative affect	.56***	.58***	.83***	.29	.52**	.49**	.75***	.23	.41*	.57***
Anxiousness	.36*	.27	.54**	.29	.50**	.66***	.72***	.11	.36*	.46**
Depressivity	.53**	.40*	.44**	-.26	.45**	.09	.53**	.56***	-.15	.05
Emotional lability	.51**	.59***	.81***	.42*	.34*	.35*	.56**	.19	.55**	.49**
Perseveration	.53**	.49**	.68***	-.05	.46**	.28	.64***	.29	.10	.45**
Separation insecurity	.23	.38*	.36*	.24	.08	-.03	.16	-.01	.35*	.17
Submissiveness	.34*	.11	.30	.02	.46**	.43*	.47**	.10	.00	.50**
Hostility	.25	.49**	.76***	.46**	.28	.43**	.55**	.03	.48**	.46**
Detachment	.53**	.35*	.44**	-.10	.66***	.24	.52**	.70***	-.38*	.23
Anhedonia	.38*	.19	.31	-.19	.53**	.19	.29	.58***	-.21	.20
Withdrawal	.38**	.20	.18	-.05	.53**	.17	.42*	.60***	-.47**	.07
Restricted affectivity	.44**	.20	.27	-.17	.41*	.10	.31	.47**	-.39*	.13
Intimacy avoidance	.36*	.26	.30	-.06	.52**	.12	.34*	.64***	-.35*	.13
Suspiciousness	.53**	.55**	.70***	.09	.59***	.37*	.72***	.46**	.03	.39**
Antagonism	.33	.59***	.33	.50**	-.08	-.07	.25	.20	.19	-.17
Deceitfulness	.20	.48**	.18	.41*	.04	.02	.36**	.21	.05	-.13
Manipulativeness	.27	.44**	.21	.37*	.06	.03	.26	.24	-.01	-.11
Grandiosity	.04	.27	-.04	.47**	-.43*	-.17	-.13	-.08	.13	-.29
Callousness	.39*	.31	.18	-.26	.06	-.34*	.01	.49**	-.24	-.29
Attention seeking	.30	.57***	.62***	.63***	.06	.16	.36*	-.03	.60***	.18
Disinhibition	.57***	.65***	.79***	.51**	.52**	.36*	.69***	.27	.37*	.57***
Distractibility	.53**	.61***	.74***	.30	.51**	.31	.66***	.36*	.29	.54**
Rigid perfectionism	.14	.10	.36*	.38*	.56***	.71***	.56**	.04	.26	.46**
Irresponsibility	.48**	.60***	.52**	.48**	.36*	.02	.47	.35	.02	.34*
Impulsivity	.58***	.65***	.71***	.40*	.09	.00	.35*	.08	.47**	.34
Psychoticism	.79***	.62***	.51**	.03	.14	-.20	.36*	.39*	.09	-.05
Unusual beliefs and experience	.63***	.45**	.33	-.12	.10	-.18	.27	.45**	-.07	-.17
Risk taking	.56***	.56***	.38*	-.03	-.09	-.31	.18	.12	.17	-.09
Eccentricity	.74***	.63***	.49**	.15	.13	-.13	.37*	.36*	.13	.00
Cognitive and perceptual dysregulation	.69***	.35*	.44**	.06	.40***	.03	.38*	.47**	.00	.09

Note. Traits that are proposed as criteria for each remained PD in the DSM-5 Section III are in bold. K-PID-5-SF =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STPD =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ASPD =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BPD =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PD =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VPD =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OCPD =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PPD =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SPD = 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HPD = 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DPD =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 $p < .05$. ** $p < .01$. *** $p < .001$.

관을 살펴본 결과, 조현형 성격장애는 정신병적 경향성과, $r = .79$, $p < .001$,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탈억제와, 각각, $r = .65$, $p < .001$; $r = .51$, $p < .01$,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와 강박성 성격장애는 부정적 정서성과, 각각 $r = .83$, $p < .001$; $r = .49$, $p < .01$, 회피성 성격장애는 애착상실과, $r = .66$, $p < .001$,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장애와 특질 양상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성격장애는 제안된 양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조현형 성격장애는 기이성과, $r = .74$, $p < .001$,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충동성과, $r = .65$, $p < .001$,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가변성과, $r = .81$, $p < .001$,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관심추구와, $r = .63$, $p < .001$, 회피성 성격장애는 위축과, $r = .53$, $p < .001$, 강박성

성격장애는 경직된 완벽주의와, $r = .71$, $p < .001$, 가장 높은 상관을 가졌다.

다음으로 Section III에서 삭제된 4개 성격장애와 병리적 성격 특질 영역 및 양상 간 상관도 살펴보았다. 편집성·연극성·의존성 성격장애는 부정적 정서성과, 각각 $r = .75$, $p < .001$; $r = .41$, $p < .01$; $r = .57$, $p < .001$,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조현성 성격장애는 애착상실과 가장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70$, $p < .001$ (Table 3).

PSY-5와의 상관관계

한국판 PID-5-SF와 PSY-5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5개 병리적 성격 영역은 기대된 PSY-5 소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K-PID-5-SF and PSY-5

	NEGE	INTR	AGGR	DISC	PSYC
Negative affect	.84***	.43**	-.15	.01	.55***
Anxiousness	.77***	.42**	-.21	-.10	.48**
Depressivity	.49***	.43**	-.06	.01	.58***
Emotional lability	.76***	.32*	-.17	.06	.42**
Perseveration	.57***	.32*	.01	-.02	.49**
Separation insecurity	.46**	.18	-.12	-.13	.29*
Submissiveness	.42**	.28	-.14	.10	.30*
Hostility	.63***	.12	.01	.13	.16
Detachment	.40**	.58***	-.19	-.06	.61***
Anhedonia	.53***	.49***	-.30*	-.05	.37**
Withdrawal	.23	.43**	.00	-.03	.46**
Restricted affectivity	.16	.37*	-.10	-.01	.48**
Intimacy avoidance	-.03	.40**	-.14	-.14	.31*
Suspiciousness	.60***	.47**	-.17	.00	.65***
Antagonism	.06	-.27	.39**	.40**	.25
Deceitfulness	.31*	.10	.23	.32*	.51***
Manipulativeness	.08	-.11	.06	.13	-.14
Grandiosity	-.32*	-.55***	.34*	.11	-.20
Callousness	-.03	.14	.13	.14	.43**
Attention seeking	.11	-.29	.32*	.39**	.15
Disinhibition	.72***	.26	.16	.35*	.48**
Distractibility	.64***	.41**	-.12	.14	.45**
Rigid perfectionism	.44**	-.14	.37*	.21	.01
Irresponsibility	.52***	.30*	.07	.28	.46**
Impulsivity	.52***	.18	.19	.42**	.49***
Psychoticism	.40**	.14	.17	.28	.68***
Unusual beliefs and experience	.26	.14	-.04	.04	.58***
Risk taking	.14	-.10	.38**	.29	.40**
Eccentricity	.44**	.10	.14	.36*	.60***
Cognitive and perceptual dysregulation	.44**	.33*	.07	.19	.61***

Note. Correlation in bold indicate those that expected result in PSY-5. K-PID-5-SF =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PSY-5 = 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NEGE = Negative Emotionality/Neuroticism; INTR = Introversion Low Positive Emotion; AGGR = Aggressiveness; DISC = Disconstraint; PSYC = Psychoticism.

* $p < .05$. ** $p < .01$. *** $p < .001$.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성 영역은 부정적 정서성/신경증(NEGE)과, $r = .84, p < .001$, 애착상실 영역은 내향성/낮은 긍정적 정서성(INTR)과, $r = .58, p < .001$, 적대성 영역은 공격성(AGGR)과, $r = .39, p < .01$, 탈억제 영역은 통제결여(DISC)와, $r = .35, p < .05$,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은 정신증(PSYC)과, $r = .68, p < .001$,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병리적 성격 특질 양상 또한 기대된 PSY-5 소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Table 4).

NEO-FFI와의 상관관계

한국판 PID-5와 NEO-FFI 척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을 제외한 4개의 병리적 성격 특질영역은 기대된

NEO-FFI 소척도 간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성 영역은 신경증과, $r = .80, p < .001$,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애착상실 영역은 외향성과, $r = -.82, p < .001$, 적대성 영역은 우호성과, $r = -.47, p < .001$, 탈억제 영역은 성실성과, $r = -.61, p < .001$,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은 개방성과, $r = .27, ns$,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성격 및 성격장애를 평가하는 데 간결하게 실시할 수 있는 한국판 PID-5 단축형을 구성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수행되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K-PID-5-SF and NEO-FFI

	N	E	A	C	O
Negative affect	.80***	-.53***	-.55***	-.59***	.17
Anxiousness	.78***	-.51***	-.45**	-.43**	.22
Depressivity	.54***	-.53***	-.35*	-.49***	.05
Emotional lability	.75***	-.36*	-.46**	-.65***	.19
Perseveration	.49***	-.49***	-.50***	-.50***	.11
Separation insecurity	.50***	-.21	-.47**	-.19	-.03
Submissiveness	.00	.13	.18	.04	.11
Hostility	.71***	-.54***	-.51***	-.60***	.16
Detachment	.56***	-.82***	-.63***	-.41**	-.04
Anhedonia	.56***	-.75***	-.51***	-.34*	-.13
Withdrawal	.44**	-.77***	-.60***	-.36**	-.16
Restricted affectivity	.19	-.50***	-.49***	-.13	-.05
Intimacy avoidance	.31*	-.60***	-.27	-.29*	.00
Suspiciousness	.63***	-.48***	-.58***	-.45**	.21
Antagonism	.13	-.08	-.47**	-.09	.00
Deceitfulness	.29*	-.22	-.57***	-.18	-.06
Manipulativeness	.12	-.08	-.47**	-.15	.07
Grandiosity	-.13	.17	-.13	.34*	.05
Callousness	-.03	-.19	-.45**	-.21	-.26
Attention seeking	.19	.02	-.15	-.16	.12
Disinhibition	.66***	-.49***	-.46**	-.61***	.11
Distractibility	.64***	-.43**	-.28*	-.70***	.02
Rigid perfectionism	.39**	-.30*	-.35*	-.03	.21
Irresponsibility	.37**	-.34*	-.41**	-.33*	-.28*
Impulsivity	.41**	-.27	-.23	-.58***	.23
Psychoticism	.34*	-.25	-.41**	-.27	.27
Unusual beliefs and experience	.14	.06	-.24	-.01	.25
Risk taking	.06	-.09	-.14	-.13	.22
Eccentricity	.37**	-.31*	-.30*	-.39**	.18
Cognitive and perceptual dysregulation	.48***	-.34*	-.59***	-.28*	.18

Note. Correlation in bold indicate those that expected result in NEO-FFI. K-PID-5-SF =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NEO-FFI = NEO-Five Factor Inventory; N = Neuroticism; E = Extraversion; A = Agreeableness; C = Conscientiousness; O = Openness. * $p < .05$. ** $p < .01$. *** $p < .001$.

었다. PID-5는 임상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가자의 피로를 유발하여 정확한 평정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임상 및 연구 장면에서 시간적 비효율성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간결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단축형이 요구된다.

한국판 PID-5 단축형은 선행연구(Hong et al., 2018)에서 타당도가 검증된 원형의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각 양상당 4문항씩 추출하여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판 PID-5-SF를 구성하였다. 한국판 PID-5는 영문판과 달리 위험감수 양상이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에 포함되었으므로 영문판 단축형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한국판 단축형 문항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한국판 PID-5-SF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5개 영역에 대한 내적합치도는 평균 .76, 25개 양상은 평균 .77로 영문판 PID-5-SF의 내적합치도에 비하면 다소 낮지만,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판 PID-5-SF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원형 및 성격을 평가하는 다른 검사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판 PID-5-SF가 원형의 요인구조와 일치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하위 요인 수가 많아 모형을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문항-양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과 ‘양상-영역’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문항이 각 양상들의 특성과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양상들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이는 각 양상들이 단일요인, 즉 서로 독립적인 변인으로 간주되므로(Krueger et al., 2012) 이들을 분리하여 분석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분석 결과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가졌으며 요인부하량 또한 유의하였다. 이는 단축형으로 구성된 100문항이 원형에서 측정하는 25개 병리적 성격 특질 양상들의 특성을 잘 측정함을 시사한다.

또한, 병리적 성격 특질의 하위 양상들이 해당 상위 영역과 잘 연결되는지 살펴본 결과 다소 낮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의 적합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 MI)를 살펴보았을 때 몇 양상 간 오차항의 상관이 높았던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감정 가변성과 적개심, 우울성과 무쾌감증, 그리고 친밀성 회피와 위축의 오차항들이 높은 상관을 가졌으며 이는 각 양상들이 서로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양상들은 동일한 영역 내 하위 양상으로 함께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문항과 요인을 가진 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합도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한 요인에 포함

되는 여러 문항들 중 일부 문항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경우 상관이 높게 나타나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적합도와 무관하게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이 높고 요인 간 교차부하(cross-loading)가 적은 경우에는 좋은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판 PID-5-SF는 원형과 동일한 5요인 구조로 나타났으며, 원형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병리적 성격 특질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국판 PID-5 원형과 단축형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원형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각 양상별로 문항반응이론의 부분점수모형으로 분석하여 참가자의 잠재특질을 의미하는 특질 모수(θ)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특질모수(θ)와 단축형 점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척도 간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비록 문항이 축소되었지만 단축형이 원형과 동질적이며, 원형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을 단축형이 잘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PID-5-SF와 성격장애 진단검사 간 상관을 살펴본 결과 Section III에 포함된 성격장애는 제한된 병리적 성격 특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Maples 등(20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다만, 원형과 성격장애 진단검사 간 상관분석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일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원형에서는 강박성 성격장애와 고집증, 제한된 정서성 양상이 유의한 상관을 가졌으나 단축형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단축형으로 구성되면서 제거된 문항들이 강박성 성격장애의 구성개념을 더욱 잘 반영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예컨대, 제한된 정서성의 문항에서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감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나는 감정적이지 않다’, ‘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에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가 삭제되었다. 이 문항들은 감정 표현을 제한하기보다는 강박성 성격장애의 주요 특징인 경직되고 완강하며 정서적 표현을 하지 않는 점과 더욱 관련이 있어 나타난 결과로 짐작된다.

한국판 PID-5-SF와 PSY-5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병리적 성격 특질은 PSY-5의 유사한 구성개념으로 여겨지는 소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원형에서는 탈억제 영역이 기대된 통제결여(DISC)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지 않았으나 단축형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단축형 문항을 구성할 때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만을 추출하면서 해당 변인의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반영하여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PID-5-SF와 NEO-FFI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병리적 성격 특질은 유사한 구성개념으로 여겨지는 성격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다만, 정신병적 경향성 영역은 개방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현상은 Maples 등(2015)의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정신병적 경향성과 개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들마다 결과가 불일치한다. 두 영역 간 상관의 유의하다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에(Chmielewski, Bagby, Markon, Ring, & Ryder, 2014; De Fruyt et al., 2013; Gore & Widiger, 2013; Thomas et al., 2012),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Few et al., 2013; Quilty et al., 2013; Suzuki, Samuel, Pahlen, & Krueger, 2015; Watson, Stasik, Ro, & Clark, 2013). 따라서 추후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단축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므로 임상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유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자기보고형 척도에 따른 평가자 편향이 있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증상을 과소 또는 과대 보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성격 특질 및 성격장애를 평가할 때는 수검자의 태도와 응답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추후에 수검자가 검사에 올바르게 응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타당도 척도의 구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PID-5의 단축형을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PID-5 단축형 구성을 통해 적은 수의 문항으로도 원형에서 측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개인의 고유한 성격 특질을 파악하고,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본 단축형 척도는 임상 또는 연구 장면에서 시간 및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 유용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nderson, J. L., Sellbom, M., Ayearst, L., Quilty, L. C., Chmielewski, M., & Bagby, R. M. (2015). Associations between DSM-5 section III personality traits and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2-Restructured Form (MMPI-2-RF) scales in a psychiatric patient sample. *Psychological Assessment, 27*, 801-815.
- Chmielewski, M., Bagby, R. M., Markon, K., Ring, A. J., & Ryder, A. G. (2014). Openness to experience, intellect, 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and psychoticism: Resolving the controvers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8*, 483-499.
- Costa, P. T., & McCrae, R. R.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 5-13.
- De Fruyt, F., De Clercq, B., De Bolle, M., Wille, B., Markon, K., & Krueger, R. F. (2013). General and maladaptive traits in a five-factor framework for DSM-5 in a university student sample. *Assessment, 20*, 295-307.
- Edwards, P., Roberts, I., Sandercock, P., & Frost, C. (2004). Follow-up by mail in clinical trials: Does questionnaire length matter?. *Controlled Clinical Trials, 25*, 31-52.
- Few, L. R., Miller, J. D., Rothbaum, A. O., Meller, S., Maples, J., Terry, D. P., & MacKillop, J. (2013). Examination of the section III DSM-5 diagnostic system for personality disorders in an outpatient clinical samp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 1057-1069.
- Fossati, A., Krueger, R. F., Markon, K. E., Borroni, S., & Maffei, C. (201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predicting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in community-dwelling Italian adults. *Assessment, 20*, 689-708.
- Gore, W. L., & Widiger, T. A. (2013). The DSM-5 dimensional trait model and five-factor models of general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2*, 816-821.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rkness A. R., McNulty J. L., Ben-Porath Y. S. (1995). The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PSY-5): Constructs and MMPI-2 scales. *Psychological Assessment, 7*, 104-114.
- Hong, S. H.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 Hong, T. H., Hwang, S. T., & Kim, Y. L. (2018). *Replic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K-PID-5)*. Manuscript in preparation.
- Jepson, C., Asch, D. A., Hershey, J. C., & Ubel, P. A. (2005). In a mailed physician survey, questionnaire length had a threshold effect on response rate.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58*, 103-105.
- Kim, J. H., Kim, B. H., & Ha, M. S. (2011).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 47-65.
- Krueger, R. F., Derringer, J., Markon, K. E., Watson, D., & Skodol, A. E. (2012). Initial construction of a maladaptive personality trait model and inventory for DSM-5. *Psychological Medicine, 42*, 1879-1980.
- Lee, K. I. (1995). *Factor structure and maladaptive group profiles of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for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Maples, J. L., Carter, N. T., Few, L. R., Crego, C., Gore, W. L., Samuel, D. B., & Krueger, R. F. (2015). Testing whether the DSM-5 personality disorder trait model can be measured with a reduced set of items: An item response theory investigation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sychological Assessment, 27*, 1195-1210.

- Quilty, L. C., Ayeart, L., Chmielewski, M., Pollock, B. G., & Bagby, R. M. (2013).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in an APA DSM-5 field trial sample. *Assessment, 3*, 362-369.
- Seo, J. S., & Hwang, S. T. (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 273-288.
- Shin, S. Y., & Hwang, S. T. (201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0*, 1-24.
- Skodol, A. E., Bender, D. S., Morey, L. C., Clark, L. A., Oldham, J. M., Alarcon, R. D., & Siever, L. J. (2011). Personality disorder types proposed for DSM-5.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5*, 136-169.
- Suzuki, T., Samuel, D. B., Pahlen, S., & Krueger, R. F. (2015). DSM-5 alternative personality disorder model traits as maladaptive extreme variants of the five-factor model: An item-response theory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4*, 343-354.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Boston, MA: Allyn & Bacon/Pearson Education.
- Thomas, K. M., Yalch, M. M., Krueger, R. F., Wright, A. G., Markon, K. E., & Hopwood, C. J. (2012). The convergent structure of DSM-5 personality trait facets and five-factor model trait domains. *Assessment, 3*, 308-311.
- Watson, D., Stasik, S. M., Ro, E., & Clark, L. A. (2013). Integrating normal and pathological personality: Relating the DSM-5 trait-dimensional model to general traits of personality. *Assessment, 3*, 312-326.
- Widiger, T. A., & Simonsen, E. (2005). Alternative dimensional models of personality disorder: Finding a common ground.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9*, 110-130.
- Yam, W. H., & Simms, L. J. (2014). Comparing criterion-and trait-based personality disorder diagnoses in DSM-5.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3*, 802-808.

국문초록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단축형(Korean version of 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K-PID-5-SF)의 구성과 타당화

홍태화¹ · 김율리² · 황순택¹

¹충북대학교 심리학과, ²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DSM-5 Section III에서는 성격장애에 대한 차원-범주 혼합모델(Hybrid dimensional-categorical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이 성격장애를 평가하는 데 보다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DSM-5 성격질문지(The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PID-5)가 개발되었지만, 220 문항의 다수 문항으로 인하여 참가자의 피로유발 및 시간적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 평가를 간결하게 실시할 수 있는 한국판 DSM-5 성격질문지 단축형(K-PID-5-SF)을 구성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K-PID-5-SF는 원형과 동일한 5요인 구조로 나타났다. K-PID-5-SF는 내적합치도가 적절한 수준이었으며, 한국판 PID-5, 성격장애 진단검사,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PSY-5) 척도 및 NEO-Five Factor Inventory (NEO-FFI)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는 K-PID-5-SF가 성격장애를 평가하는 데 타당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으며, DSM-5 Section III 성격장애 모델의 경험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성격, 성격장애, DSM-5 Section III, DSM-5 성격질문지 단축형, K-PID-5-SF

Supplementary materials.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K-PID-5-SF)*

다음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질문지입니다. 답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반응을 선택해주세요. (0 = 전혀 아니다, 1 = 약간 아니다, 2 = 약간 그렇다, 3 =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2	나는 전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3	사람들은 나를 감정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
4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맞춘다.
5	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일 수 있도록 행동한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7	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8	나는 항상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9	다른 사람들은 내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0	사람들은 내가 경말 특이한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11	나는 대체로 삶을 즐기지 못한다.
12	나는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짜증나게 하면 바로 쏘아붙인다.
13	나는 활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14	다른 사람들은 나를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화를 잘 낸다.
16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중요한 존재이다.
1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많이 한다.
18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많이 걱정된다.
19	나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
20	나는 단 몇 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
22	나는 다른 일에 주의를 빼앗겨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다.
23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싶으면 그것이 위험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다.
24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25	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을 좋아한다.
26	때때로 나는 어떤 친숙한 대상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27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내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다.
28	나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2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30	내 감정을 크게 드러내진 않는 편이다.
31	나는 약간의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다(예: 때때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32	나는 무슨 일을 하든 걱정이 앞선다.
33	나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즐겁다.
34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35	나는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멈추지 못한다.
36	사람들은 내 감정이 어떤지 알기 어렵다고 한다.
37	나는 내가 한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38	실제로는 거기에 없는 사람을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는 등의 특이한 경험을 종종 한다.
39	나는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다.
40	나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
41	무슨 일이든지 나에게 다 걱정거리다.
42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43	나는 사람들이 나를 속이거나 해를 입힐까봐 항상 경계한다.
44	집중을 해야 하는 일인데도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다.
45	어떤 것에 폭 빠져 떨어버리기 어렵다.
46	나는 별 것 아닌 일로도 쉽게 감정적으로 된다.
47	나의 완벽주의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한다.
48	나는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49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50	혼자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두렵다.

(Continued to the next page)

Supplementary materials. *Continued*

51	나의 일 처리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식을 고집한다.
52	나는 종종 나 자신이나 남의 물건을 매우 부주의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53	나는 불안이 심한 사람이다.
54	나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55	나는 주위가 쉽게 흐트러진다.
56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다.
57	남보다 앞서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속임수를 쓰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
58	나는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 번 확인한다.
59	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60	나는 내 감정이 순간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61	나는 어떤 것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한다.
62	나는 연인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63	나는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다.
64	나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6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66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67	나는 사실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약속을 한다.
68	나는 별 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난다.
69	나는 위협할 가능성은 개의치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
70	나는 사람들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71	나는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다.
72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73	나는 사소한 일로도 쉽게 감정적으로 된다.
74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더라도 나에게는 별일이 아니다.
75	나는 남들에게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76	나는 인간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77	나는 책임질 상황을 피하곤 했다.
78	나는 주목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79	나는 결단코 혼자 있고 싶지 않다.
80	나는 최선을 다해 일을 잘 해놓고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81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겠다.
82	나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
83	나는 사고모임을 피한다.
84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85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모욕을 당하면 무척 화가 난다.
86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조차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
87	때때로 누군가가 내 머리 속의 생각을 빼내가는 것 같다.
88	내가 세상이나 나 자신으로부터 단절된 것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8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해주려고 노력한다.
90	나는 연애를 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91	나는 매우 충동적이다.
92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남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종종 한다.
93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한다.
94	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95	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싶다.
96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
97	어떤 일을 할 때 위험하다고 해서 피하지는 않는다.
98	내 주위의 것들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나 보통 때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99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진실을 숨길 것이다.
100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쯤은 어렵지 않다.

Supplementary materials. *Korean Version Personality Inventory for DSM-5 Short Form (K-PID-5-SF) Scoring*

	Scoring
Negative affect	
Anxiousness	32, 40, 41, 53
Depressivity	63, 64, 72, 76
Emotional lability	46, 60, 73, 81
Perseveration	27, 35, 45, 51
Separation insecurity	18, 20, 50, 79
Submissiveness	4, 6, 19, 89
Hostility	12, 15, 68, 85
Detachment	
Anhedonia	1, 11, 13, 48
Withdrawal	59, 70, 82, 83
Restricted affectivity	3, 30, 36, 75
Intimacy avoidance	28, 33, 62, 90
Suspiciousness	43, 54, 56, 86
Antagonism	
Deceitfulness	57, 93, 96, 99
Manipulativeness	39, 49, 71, 100
Grandiosity	16, 21, 42, 84
Callousness	24, 29, 66, 74
Attention seeking	5, 25, 78, 95
Disinhibition	
Distractibility	22, 44, 55, 61
Rigid perfectionism	37, 47, 58, 80
Irresponsibility	14, 52, 67, 77
Impulsivity	2, 7, 8, 91
Psychoticism	
Unusual beliefs and experience	31, 34, 38, 94
Risk taking	17, 23, 69, 97
Eccentricity	9, 10, 65, 92
Cognitive and perceptual dysregulation	26, 87, 88, 98

*Reverse-scoring(1): 33.